

[종합·해설]

민주신당 경선 첫 분수령은 광주·전남

대통합민주신당이 25일 대선후보 경선의 전국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각 후보들이 대응전략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후보들은 특히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에서의 승부가 경선 판도 전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호남권 경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선 일정의 이해득실=국민경선추진위는 당초 지난 2002년 국민경선처럼 제주-울산-광주 순으로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후보 간 협의에서 일정이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연기되지나 우세지역에서 경선이 번

전국 순회경선 세번째 지역

지 실시될 경우 이후 다른 지역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은 당 국민경선위 협의과정에서 가급적 유리한 지역의 경선이 초반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각각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에 따라 첫 경선지는 울산·제주(9월15일), 2회 경선지는 강원·충북(9월16일)으로 결정됐

다. 이 지역은 성향상 어느 후보도 유불리를 따지지 쉽지 않은 '무색무취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협의 도중 국민경선위에서는 2회 경선지로 인천·충북을 고려했으나 정동영 후보 측이 인천 지역이 손학규 후보의 강세지역이라고 반발하

범여 전통 '덧밭'... 판세 좌우

면서 강원·충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 후보와 정 후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추석 이전에 실시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후보들이 반발, 추석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두권 세 후보의 연고지인 수도권(손 후보), 전북(정 후보), 대전·충남(이해찬 후보)은 모두 경선 중반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전남 경선이 분수령=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첫 번째 분기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3회 광주·전남 경선이 될 것이라 분석이 많다. 광주·전남 경선이 중요한 것은 범여권의 전통적 '덧밭'인 호남지역에서

치러지는 데다 경선 초반에 배치돼 이후 타지역 경선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서도 3회 경선지인 광주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해 대세를 굳혔다.

특히 호남지역 여론조사 1위와 2위를 주고 받고 있는 손 후보와 정 후보의 선두 경쟁이 관심거리다. 두 후보는 이에 따라 조직을 총동원,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또 손 후보는 28일 직접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손 후보는

각 후보들 전략 마련 부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범여 후보'임을 강조, '광주 정치권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 후보도 예비경선일인 다음달 3~5일 이전에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 기존 조직을 재점검하고 평화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광주 적십자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광주·전남경선에서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후보(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노 권영길 초반 질주

제주, 광주·전남 이어 대구·경북도 1위

득표율 50% 못 미쳐 결선 갈 듯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전국 순회 경선의 두 번째 광주·전남 경선에 이어 세 번째 개표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권영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권 후보는 26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민노당 17대 대선 후보 선출대회 대구·경북지역 개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자 4천312명 중 1천355표를 획득해 990표를 얻은 심상정 후보와 957표를 얻은 노회찬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투표에서 민노당 당원 가운데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자 4천312명 중 2천982명(은라인 2천343명, 오프라인 639명)이 참여해 69.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앞서 25일 광주·전남지역 개표에서도 권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자 2천922명 중 1천749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노회찬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655표와 508표를 얻어 2, 3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권 후보는 지난 24일 제주지역 개표를 시작으로 이른바 '슈퍼 3연전'이라 불린 제주,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 경선에서 모두 3천18표(46.3%)를 얻어 1천809표(27.7%)인 노 후보와 1천694표(26%)인 심 후보를 제치고 경선 초반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경선 초반 권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현재 구도로는 1.2위간 최종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민노당 순회경선은 수도권 외 지역 중 당원자 수가 가장 많은 경남지역의 개표 결과에 따라 중간 판세가 갈리고 당원자의 43%가 속해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경선까지 치러야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경선은 29일 대전·충남, 31일 전북, 9월2일 경남 등으로 이어지며 서울(9천685명), 경기(8천429명), 인천(3천837명)은 9월9일 치러진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장

정동영 "대북송금·대연정 책임 통감"

대통합민주신당 예비 후보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과거 분당과 대북송금 특검, 대연정 등 처음 기대와 성원을 저버린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 송금특검은 평의원에 불과했어도 막았어야 하며 대연정은 장관직을 박차고 나와 했다"고 토로하며 "국민께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광주서 '평화선도국가' 발표

대통합 민주신당 예비 후보인 유시민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 평화선도국가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김재중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참정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평화선도국가를 위한 5가지 전략으로 국가 품위를 높이는 외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평화 전략벨트 구축,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정예강군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적개발 원조 방안으로 광주에 국제 평화대 설립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DJ·노정부 계승 내가 적임"

대통합 민주신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날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으나 노 대통령의 첫 작품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분당 사태를 맞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샐러리맨-이장 신화 구도될 것"

대통합민주신당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광주를 방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샐러리맨 성공신화'라면 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장-군수 성공신화'로 대립구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날 광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에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이 후보와 서민을 대표하는 내가 대결한다면 국민적 감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지경기자 jkpark@

천정배 민주신당 컷오프 통과 할까

도덕성·개혁성 내세워 바람몰이 기대 2순위 표 놓고 한명숙·추미애와 점전

대통합 민주신당이 다음달 3~5일 실시되는 예비경선에서 본 경선에 진출할 대통령 예비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기로 한 가운데 천정배 의원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대통합 민주신당 예비 대선후보 가운데 유일한 전남 출신(목포)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천 의원의 컷오프 통과 여부는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천 의원은 현재 중하위권인 5~7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의 컷오프 통과를 위해



4~5위 티켓을 놓고 한명숙 전 총리, 추미애 전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점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천 의원은 3강 후보(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지지자들로부터 2순위 투표를 많이 확보해야 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민주당 출신의 여성 후보인 추미애 전 의원이 2순위 표를 많이 잡으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 측은 "도덕성과 개혁성

으로 무장한 천 의원은 정통 민주세력의 적자"라며 "컷오프 통과를 물론 본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범여권의 주자로 선출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 측에서는 "DJ 이후를 이끌 이갈 민주세력의 대표 주자로 천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며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고려한 광주·전남 지역민이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목포 중·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 수석 입학,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정치권에 입문, 범여권의 주자로 성장한 천 의원은 도덕성과 개혁성,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컷오프를 통과, 본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2008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유치원·초등교사-11월 18일시행, 중등교사-12월 2일) 시행예정 **관심없는 공부엔 당비일 뿐입니다.**

꼭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개설강좌: **꼭내영 교육학** (내용영역별 문제풀이반 개강 9월 13일), **초등교육 위재권선생** (종합문제풀이반 개강 9월 12일), **전공수학 임대성선생** (기본문제풀이반 개강 9월 14일)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경 http://www.naeyoung.com

강치음 전공생물·장영민 전공물리 김성인 전공미술·김형수 전공영어

인터넷 동영상강의 에듀뷰넷 www.eduview.net

단체 10명 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관공과 마감유여(현재 상황과 접수중))

꼭내영고시학원 대표 전화 (062) 529-0090

축 8월은 광복의 달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조국의 광복을 찾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애국하는 길을 생각하고 국가 번영에 노력합시다

보 해 양 조 (주) 사 장 임 건 우 대표이사	남 옥 건 설 대 표 이 윤 남	(주) 동 명 전 력 대표이사 임 영 춘
(주) 행 남 자 기 창 업 회 장 김 준 형	(주) 부 국 건 설 대표이사 이 상 현	(주) 상그리아비치호텔 임 직 원 일 동
회 장 김 용 주	(주) 옥 주 건 설 대표이사 김 영 권	K T 목 포 지 사 임 직 원 일 동
가 산 토 건 (주) 대표이사 조 경 구	가 업 건 설 (주) 대표이사 장 건 술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임 직 원 일 동
	정 승 건 설 (주) 대표이사 조 인 형	한국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 임 직 원 일 동